

비쟁점 법안 120건 순조롭게 처리 될까

여야 내일 본회의... 탄력근로제·파트법 평행선에 진통 예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20~24일 美 방문... 대화 물꼬 '주목'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차일피일 미뤄져 온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 민생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쟁점 법안 처리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민생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뜨거운 감자'인 패스트트랙 법안, 즉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12월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지만, 여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당 교섭단체 간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문화상 의장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 다양한 단위의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0~24일 함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 기간 합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50~299

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빗발치지만, 국회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도 이를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당장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에 앞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는 최근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 6건도 포함됐다. 데이터 3법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처리'를 한 목소리로 강조한 데다 최근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 데이터 3법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 오르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대부분 지방직인 소방관들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장비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북극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북극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별다른 무리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앞 지역정가, 출판기념회 봇물

광주·전남 입후보자들 이번주에만 10여건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광주·전남 지역정가도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7일 광주·전남 정가에 따르면 이날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자신의 책 '매니페스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토크쇼로 진행됐고, 최 전 정장은 자신의 경험과 향후 계획 등을 털어놓았다.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윤영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는 12월 8일 남구문예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병훈 전 부시장은 광주 동남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오는 12월 7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서구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구갑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광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송갑석 의원이 오는 12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구을에서는 양항자 일본경제협력대 책위 부위원장이 12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시사평론가 이남재 출마예정자도 내년 1월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희용 세무사도 오는 12월 8일 제야아트 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 북구갑 출마예정자들도 앞다투어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북구 동신고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기록하고 반성한 내용이 책에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

또 조오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도 지난달 24일 사퇴하고 민주당 북구갑 경선에 나섰다.

북구를 출마를 준비하는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도 12월 8일 오후 3시 북구 일곡동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 10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이 광산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주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다.

광산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은 오는 12월 15일,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내년 1월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출판기념회 붐이 일기 시작했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다지고 있는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최근 '큰바위 얼굴의 꿈'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지역구 현역의원인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시집 출판기념회를 했다.

나주·화순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힌 김병원 농업중앙회장은 오는 20일 나주종합스포츠타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미래의 뚝방을 파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책에는 재민 4년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교육을 통한 임직원 의식개혁을 부르짖으며 농협혁신을 이끈 김 회장의 뚝방(옹달샘) 경영전략이 담겼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부터 선거일(내년 4월 15일)까지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어 출판기념회 행렬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

"한국당 해체 지도부 사퇴"

3선 김세연 총선 불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47) 의원이 17일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3선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받는다"며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개 상임위 예산 10조원 증액

17곳 중 12곳 예비심사 마무리... 20일까지 감액 심사 완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1~15일 닷새간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다. 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보다 열을 이상 일찍 예산소위가 가동된 데다 회의가 큰 충돌 없이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여야 간 입장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류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원장-여야간사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사업에 대해 여야 간 대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예결위는 11월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주말을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다.

문제는 감액 규모 및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극명히 갈려 앞으로 예산소위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3조5000억원 원안 사수'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14조5000억원 순삭감'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513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인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000억원가량이 증액됐다.

/연합뉴스

민주 '청와대 직함' 허용 여부 내년 2월 결정

총선 과정 당내 갈등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대표 경력이 '청와대 직함'을 허용할지를 경선이 임박한 내년 2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총선 준비 과정에서 터질 수 있는 당내 '갈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관련 직함을 쓰게 할지 여부는 내년 2월쯤에나 결정 될 것"이라며 "지금 결정해서 이득이 될 것 없다는 점에서 신중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출마를 준비하는 청와대 출신 도전자들 사이에선 불만 여론이 형성된 반면, 현역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방침이 유지돼

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 사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함' 사용 여부가 지난 총선에서 흥역을 치렀던 '진문(진문재인)-비문(비문재인)' 프레임 을 다시 재연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실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향해 '비문'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탈당 릴레이'를 벌이면서 당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불리 청와대 직함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바로 친문의 프레임이 나오며 당이 내홍에 빠질 수 있다"며 "최대한 당내 공간을 모아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 건물** ▶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주 택** ▶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남구 봉선동 더셀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